



글 · 사진 : 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호주 '호바트'

▲ 웰링턴 산 정상에서 바라본 호바트시 전경.



▲ 론세스톤의 고즈넉한 풍경.

호주 대륙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의 한 개의 주(州)에 불과한 곳이지만 전체 크기가 6만 8000km²로 유럽의 스위스보다 땅 면적이 넓다. 반면 살고 있는 주민 수는 불과 47만 명 정도이다. 때문지 않은 자연과 야생 그대로 살아가는 동·식물, 원주민인 애버리진의 유적이 잘 보존된 점, 영국으로부터 초창기 이민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호주에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소득도 높고 생활 환경 역시 깨끗하여 호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으레 꼽는다.

태즈메이니아의 주도인 호바트는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다. 해발 1,270m의 웰링턴 산을 배경으로 잔잔하면서도 드넓은 더웬트강 입구에 위치하는데 원래 '호바트'라는 이름은 개척 당시 식민지 장관이었던 호바트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웰링턴 산 정상에 올라가면 호바트 시내가 한눈에 잘 들어온다. 주택의 지붕이 유난히 빨간 색이 많은데 이것은 주민들이 빨간 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바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는 마운트 필드 국립공원이 있다. 주말이면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수많은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다. 쓰러진 고목에는 파란색 이끼들이 덮여 있는 원시적인 생태를 보이는 곳이다. 신선한 피톤치드 향내가 코를 진동하는 멋진 삼림욕장에서 숲 속으로 약 20분 걸어가면 높이 40m인 러셀 폭포를 만나게 된다. 여러 개의 절벽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하얀색 물줄기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준다. 마운트 필드 국립공원은 태즈메이니아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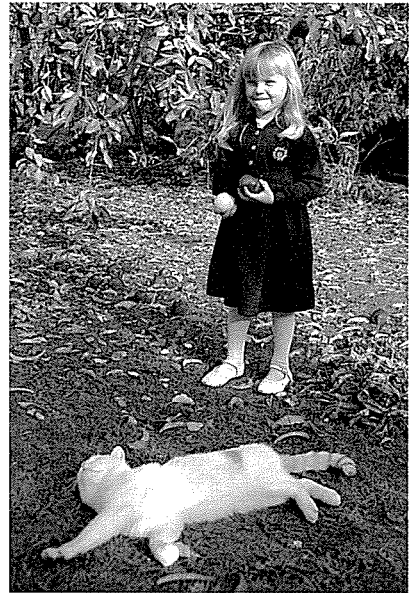
캐터랙트 계곡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입구에서는 약 450m에 달하는 거리를 리프트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데 눈 아래에 펼쳐지는 계곡의 아름다움과 스릴을 느낄 수 있다. 1863년에 세워진 킹스다리는 일종의 흔들다리라서 이곳을 건널 때에는 흥분되기도 한다. 다리에서부터 약 20분 정도 걸으면 퍼스트 베이슨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으며, 주위에는 여러 레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순백의 모래사장과 녹색색 바닷물이 출렁이는 프레시네트 국립공원은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다. 이곳의 큰 특징은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라는 점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일도 없고 이렇다 할 휴양 시설이 없는 모습이 오히려 찾는 사람을 반갑게 한다. 프레시네트 국립공원에는 9개의 각양각색의 해변이 있다. 와인글라스 해변이라고 불리는 곳은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포도주잔 같다. 이곳 산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정상까지 걸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고목과 암석들 사이를 지나 해변까지 내려가는 길에 석양을 받아 붉은 색을 띠는 기기묘묘한 대형 암석들이 인상적이었다. 해변에는 분홍색의 화강암이 길게 뻗어 있어 멋진 사진작품 감이 된다.

호주 대륙은 하나의 거대한 섬으로 5천 5백년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동·식물이 많다. 식물로는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500종에 달하는 고무나무와 600종이 있는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 와들이 많다. 비라도 내리면 광활한 초원에는 아름다운 들꽃들로 장관을 이룬다. 가장 잘 알려진 들꽃으로는 와라타, 를란넬 플라워, 데저트피, 크리스마스 부쉬와 캥거루 발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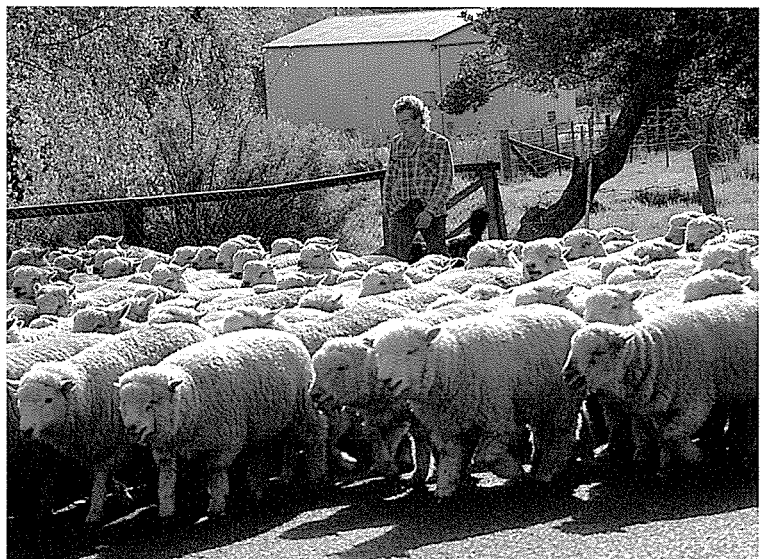
태즈메이니아에는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포유동물에 속하는 동물들 즉 캥거루, 윌라비, 태즈메이니아데블 등은 이곳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보노롱 공원 야생동물 센터를 찾아가 보면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동물 중 코알라는 귀엽게 생긴 작은 동물이다. 원주민 말로 코알라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실제로 코알라는 평생을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생활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대신 유칼립투스 잎을 먹음으로써 수분을 섭취한다.

코알라를 가까이에서 보면 졸린 듯 실눈을 뜬 모양이거나 아예 눈을 감고 있는



▲ 태즈메이니아는 맛좋은 사과 생산지이다. 과수원에서 고양이와 함께 있는 소녀 모습.

▼ 호주에서는 양의 숫자가 사람 수보다도 많다. 태즈메이니아에서도 양모산업은 중요하다.





▲ 야생의 신비가 가득한 필드 국립공원 호바트 주민들이 주말에 휴식처 겸거 찾는 곳이다.

모습이다. 캥거루와 마찬가지로 코알라는 새끼를 6개월 정도 어미의 배속 주머니에서 키우는 모성이 강한 동물이다. 태즈메니아데블은 야행성 동물로 커다란 분홍색의 귀와 붉은 색 수염, 그리고 쥐를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큰 쥐를 연상하게 한다. 생긴 것과는 달리 성질이 온순하고 스스로 세수를 할 정도로 깨끗한 동물이라고 한다.

태즈메니아 산을 오르다 보면 왈라비나 너구리 같은 동물을 만나기도 한다. 사

람을 보면 살며시 옆으로 비켜준다. 이곳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계의 동물 보호가 잘 지켜지는 지역일수록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일부 몰지각한 사냥꾼들은 곰, 청둥오리,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총을 쏘거나 극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야생동물들은 사람 소리만 나도 멀리 달아난다. 태즈메니아와 같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호바트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는 리치먼드 시가 있다. 18세기 초반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리치먼드에는 화랑, 골동품점 그리고 소규모 가내공장이 있는 아담한 마을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시내에 있다. 1823년 세워진 석조 다리로 언덕에는 성 요한 성당이 자리하고 있어 평화스런 모습을 자아낸다. 리치먼드에서 흥미로운 곳은 식민지 시대의 호바트 모습을 축소하여 전시한 곳이다. 건물들은 축소된 모습이지만 실제 건물과 흡사하게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당시 복장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많아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태즈메니아에는 약 3만 6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굴 속 바위에는 원주민들이 그린 다양한 벽화가 발견되고, 당시의 여러 생활용품도 함께 출토됨으로써 고고인류학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다.

태즈메니아는 울창한 원시림과 많은 야생 동·식물이 자연의 순수함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때문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식민지 시대의 문화 유적도 도처에 있어 유네스코가 세계의 자연 및 문화유산 지역으로 동시에 선정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



▲ 호주의 명물인 캥거루에게 먹이주는 여성. 이곳에선 야생동물을 무척이나 이긴다.